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187장** ..... **다같이**

1.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2.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3.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4.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 멘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시편 24편 3-6절** ..... **인도자**

3.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설 교**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 힐링캠프와 테마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힐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 구역 모임 중에 참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시편 24:3-6

토마스 왓슨 목사(1620-1686)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했고 런던 세인트 스티븐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작성자 중 하나로, 청교도 시대를 복음주의의 황금기로 만들었다. 그는 회심과 경건(성결)을 강조했다. 회심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결과 즉 성결한 삶을 낳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에도 청교도 문헌을 읽어야 할 이유는 그 안에 시대를 초월하는 영성의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설교는 그의 책 『경건 The Godly Man's Picture』를 바탕으로 한다.

그가 이 책의 본문으로 잡은 것은 시편 24편이다. 시편 24편은 성소 입장 의식이다. 24편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와 그의 집에 들어가고 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본래 성전 예배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4가지 즉 손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두 성결을 가리킨다.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주신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라고 부를 만하다.

요점은 경건이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찍으시고 만들어 내시는 거룩한 인장이요 작품이며 이로써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경건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리고 이 경건을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경건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4:8). 경건은 때가 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을 천국에 있게 한다. 반면 외식하는 거짓 경건도 있는데 이는 "침대에 우상을" 놓아두고 사울의 사자를 속인 미갈 같은 사람이다.

경건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① 기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시32:6).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분께 올라간다. 경건한 사람의 집은 "향기 나는 집"이니, 기도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불 없는 향은 향기를 내지 못한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불 없는 향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후에 더 좋아진다. 운동 후에 힘을 얻듯이 죄를 이길 힘이 강해진다. ② 회개: 회개는 정화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수적인 두 가지 큰 은혜는 믿음과 회개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로 비상하는 양 날개다. 회개는 기초적인 은혜다. 세상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거룩한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긴다. 우리가 회개하는 처음 순간부터 후회와 고통이 클수록 그 뒤로 느끼는 후회와 고통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회개의 눈물로 이루어진 강이 아니고는 노를 저어 낙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이며 죄인은 이 회개를 통해 안으로 겸손해지고 밖으로 개혁된다. ③ 묵상: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다. 최소한 하루 한 차례는 거룩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 묵상의 산에 오르면 눈앞에 전망이 확 트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천국이 보일 것이다. 구약에 되새김질하지 않는 침묵을 부정하다고 하는데, 묵상을 통해 말씀을 되새기지 않는 신자도 부정신자로 간주된다.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해 주어 허영심이나 자만심에 치우치지 않게 해준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 수 없다. 묵상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뿌리 내리지 않은 말씀은 새가 와서 말씀을 주워 먹는다.